

훈민정음으로 알아보는 태안해안국립공원

개발자	강경래(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)
요즘 유행하는 자음을 보고 단어를 맞히는 초성퀴즈를 이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셀프탐방을 통하여 한글의 중요성과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알린다.	
활용대상	유아 ~ 중·고등, 성인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교보재 및 임무카드
소요시간	60분
제작비용	약 10,000원(우드락, 코팅지, 실사출력 등)





반달대왕을 찾아 후 퀴즈를 맞힌다.



정답을 찾고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.

운영방법

1. 셀프탐방 및 국립공원 재방문 시 임무카드 부여한다.
2. 곳곳에 숨어있는 반달대왕을 찾는다.
3. 반달대왕이 내주는 퀴즈를 맞히고, 해설사에게 설명을 들으며 국립공원에 대하여 이해한다.

향후방향

- 게임에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하여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이 적용한다.
-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탐방 시 셀프탐방을 유도 할 수 있다.

참고내용

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해 이해한다.

1. 해안생태계 [바다, 갯벌 - 해안사구 - 곰솔림 - 습지]
2. 태안해변길

2007년 유류피해사고 이후 만들어짐

1~7코스, 100km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이다.

주의사항

- 자연관찰로 이동 시 지정된 탐방로 이외의 곳으로 탐방하지 않는다.
- 자칫 재미 위주로 진행하다 산만해질 수 있으니, 메시지 전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.